

# 기보배 세계신·김국영 한국신... '新나는' 광주시청

광주U대회를 주최한 광주시청이 크게 웃었다. 개최식 성공에 이어 대회 운영도 안정을 찾아가는데 이어 경기기록에서도 신 기록을 쏟아냈기 때문이다.

기보배 양궁 686점 '세계신기록', 김국영 육상 100m 10초16 '한국신기록'. 이들 모두 광주시청 소속이어서 광주시민의 기쁨은 두배가 됐다.

여기에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에카니 심바인은 100m를 9초97에 주파, U대회 사상 최초로 9초대 기록을 새로 썼다.

김국영의 발걸음은 그 자체가 한국 단거리 역사다.

김국영은 9일 광주 유니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광주U대회 남자 100m 준결승 1조 경기에서 10초16에 골인했다. 2010년 6월 7일 전국육상선수권대회에서 자신이 기록한 10초23을 5년 만에 0.07초 앞당긴 것이다.

자신을 향한 뜨거운 시선에 큰 부담을 느꼈던 김국영은 광주에서 새 역사를 쓰며 한국신기록과 함께 부담감을 통째로

기, 양궁 리커브 70m 라운드 예선서 686점 명중  
김, 육상 100m 준결승서 5년만에 본인 기록 경신

날려버렸다.

100m와 200m 두 종목에 출전한 김국영은 100m에 올인했다. 전날 예선 1라운드에서 10초30으로 컨디션을 조절한 김국영은 이날 오전 200m에 나섰지만 포기했다.

오후에 있을 100m에 전력하기 위해서였다. 온 힘을 쏟아야 하는 단거리의 특성상 하루 100m와 200m를 동시에 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심재용 광주시청 육상 감독은 "김국영

은 단거리에 필요한 순발력을 타고났다. 운동에 대한 집중력이 좋다"며 "안방인 광주에서 자신과의 싸움인 한국기록을 새로 써 기쁘다"고 기뻐했다.

"광주의 딸" 기보배(27)는 지난 4일 양궁 리커브 여자부 70m 라운드 예선전에서 686점을 쏘 세계기록을 갈아치웠다.

1라운드에서 344점을 쏜 그는 2라운드에서 342점을 보였다. 최종점수를 확인하던 기보배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함께 점수가 686점. 박성현이 2004년 아테네 올림

픽에서 세운 세계 기록 682점을 넘어선 점수였다.

기보배는 최미선(광주여대)·강채영과 함께 한 단체전에서 세계신기록을 갈아치우는 기쁨을 토했다.

기보배 등은 함께 2038점을 합작. 지난해 5월 콜롬비아 메데린 양궁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세웠던 기존 기록 2032점을 6점 뛰어넘었다.

/특별취재단=박정욱기자 jwpark@

## 남자 축구 4강 골인

2골 정원진 '맹활약' 우루과이 3대 0 꺾어

11일 '삼바축구' 브라질과 결승 진출 다투



한국 남자 축구대표팀의 정상 제패를 위한 네 번째 골문을 넣었다.

한국이 9일 정음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우루과이와의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축구 8강전에서 이정민의 결승골을 지키면서 3-0 승리를 거뒀다. 예선전을 3연승으로 질주하며 8강에 오른 한국은 '삼바 축구' 구

브라질과 결승 진출을 다투게 된다.

초반에는 양팀의 팽팽한 탐색전이 전개됐다. 허리싸움을 하면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하던 한국이 전반 6분 페널티박스 밖 오른쪽에서 프리킥을 얻어내면서 공격에 시동을 걸었다. 23분에는 코너킥 찬스에서 서영재가 킥으로 나서 공을 띄우며 우루과이 골대를 겨냥했다.

점유율을 높여가며 공세 수위를 높여던 전반 29분, 페널티 박스 왼쪽에서 경합을 벌이던 이정민이 슈팅을 날리며 선제골을 기록했다.

이후 측면을 파고드는 공격으로 한국이 우루과이를 흔들기 시작했다. 1-0으로 전반을 마감한 뒤 후반 초반에는 우루과이가 경기의 흐름을 주도했다. 우루과이가 한국 진영에서 여러 차례 공격을 나서며 팽팽한 흐름이 이어졌다.

후반 25분 우루과이의 추격 의지를 꺾는 추가골이 나왔다. 상대 진영에서 슈팅을 시도하던 이정민이 상대 수비수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킥을 담당하고 있는 주포 정원진이 골대 앞에 섰다. 정원진은 강한 슈팅으로 우루과이 골문을 뚫으면서 2-0을 만들었다.

이후 한국이 활발한 움직임으로 승리의 추를 기울였다. 그리고 경기 종료 직전 준결승 진출을 지축하는 정원진의 두 번째 골이 나왔다. 정원진이 역습 상황에서 그대로 공을 몰고 나간 뒤 상대 골키퍼를 제치고 골망을 흔들었다.

승장이 된 김재소 감독은 "너무 기쁘다. 어려운 상대라 부담스러운 경기였다. 선수들이 훈련을 했던 대로 잘 해줘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 우루과이가 한쪽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어서 측면 공략을 했다"며 "지도자는 우승을 목표로 한다. 목표는 금메달이다"고 언급했다.

결승으로 가는 길목에서 만나게 된 브라질. 금메달을 목표로 한 김 감독에게 큰 숙제가 남겨졌다.

김 감독은 "남미축구는 패스 위주로 경기를 풀어간다. 흥분을 많이 하는 성향을 이용해서 역습을 하면서 공세를 하겠다. 금메달을 위한 최대로 고비가 남았는데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 우루과이전 참관 슈틸리케 "축제지만 경쟁이다...이겨라"

"흥겨운 축제다. 그러나 경쟁이다. 이겨라."

슈틸리케(사진)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현장을 찾았다. 슈틸리케 감독은 9일 정음종합운동장을 찾아 한국과 우루과이의 남자 축구 8강전을 지켜봤다. 귀빈석에 앉아 경기를 관람한 슈틸리케 감독은 좋은 플레이가 나오면 박수를 보내는 등 한국축구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젊은 선수들과 호흡을 함께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우리나라에서 대학 축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고 한국의 전체적인 축구 문화 등을 살펴보기 위해 경기장을 찾게 됐다"고 밝힌 뒤 "유니버시아드는 대학 스포츠 축제다. 축제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경쟁은 경쟁이다. 승리를 하기 위해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슈틸리케 감독의 바람대로 이날 한국 대표팀은 우루과이의 공세를 물리치고 3-0의 시원한 승리를 거

뒀다. 슈틸리케 감독은 미완의 대기인 선수들을 향해 한국 축구 발전을 위한 바람도 전했다.

슈틸리케 감독은 "이 선수들은 올림픽팀. 대표팀이 되어가는 과정을 밟아야 한다. 이들에게 특별한 평가를 이야기를 해주기보다는 재능 있는 젊은 자원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걸 막고 싶다. K리그에 남아 기량을 펼치고 리그 발전에 기여를 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특별취재단=김여울기자 wool@



이렇게 좋을 수가...

9일 오후 정음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남자 축구 8강전 한국과 우루과이 경기에서 정원진(왼쪽)이 두 번째 골을 넣은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지역 자산 1위 금고 소액(3억이하) 다수인을 위한 우대 대출 아파트 담보, 분양잔금 대출 특판

**한도는 최고**      **금리는 최저**

- ☑ 햇살론대출
- ☑ 임대보증금대출
- ☑ 정부정책자금대출
- ☑ 일일상환대출

\* 근저당 설정비, 감정평가 수수료 면제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서양새마을금고**